

서유럽 주식시장 동향(6월) 및 7월 전망(2018.07.03)

김현진

☎ 82-2-3774-0423

✉ khj@futur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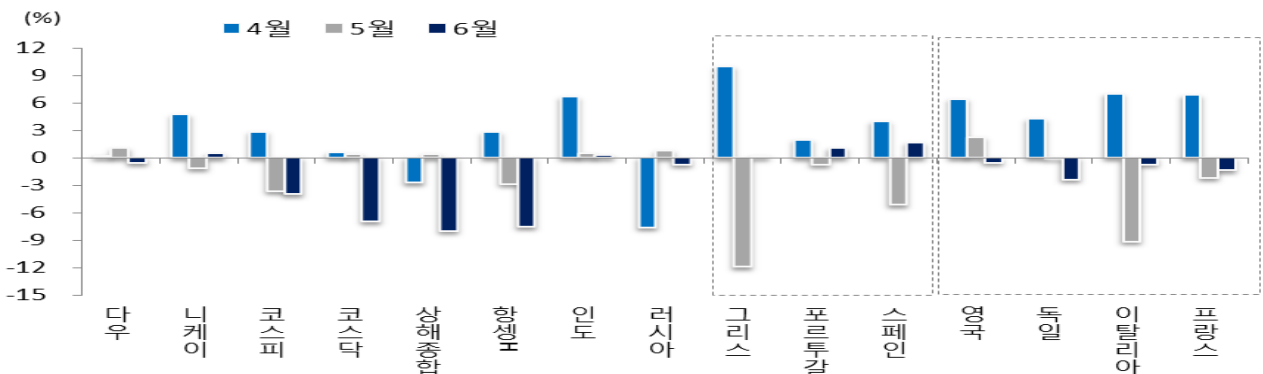
[6월 동향]

■ 6월 서유럽 증시는 무역갈등 우려 및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응해 28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소비재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의 무역갈등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독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이 난민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연정붕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 증시가 2.4%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섹터별로는 기초자재산업주가 약 4% 가량 하락하며 서유럽 증시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7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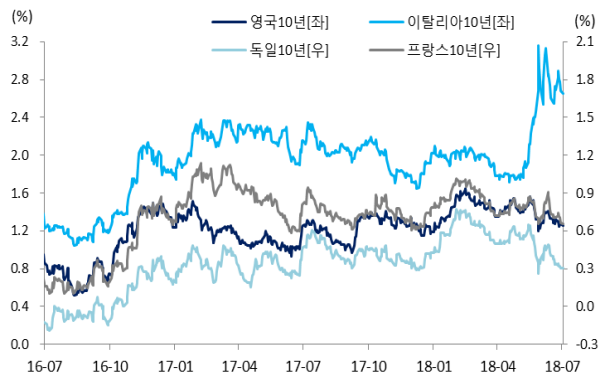
■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재확인했고 독일 연정을 구성하는 두 정당이 난민문제에 대한 협상안을 도출해낸 점은 정책적 불확실성 완화를 이끌며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조업 PMI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유로존 경기개선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시사하며 부각된 무역전쟁 전면화에 대한 우려는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 주요국 증시 월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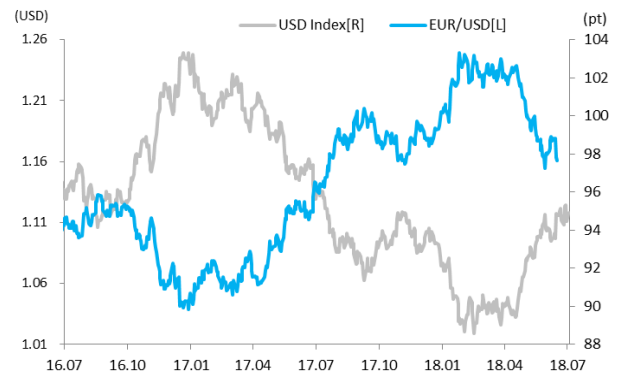
출처: 연합인포맥스,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서유럽 주요국 10년 국채수익률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유로-달러 환율, 달러인덱스



출처: Bloomberg, NH선물 리서치센터

차트. 서유럽 주요국 증시 추이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영국, 독일, 그리스, 프랑스)



출처: 연합인포맥스

[유로존 6월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

- ▶ 독일 6월 CPI 2.1%(YoY) 전월 2.2%, 0.1%(MoM) 전월 0.5%
- ▶ 유로존 6월 마르킷 제조업 PMI 54.9, 전월 55.5, 서비스업 PMI 55.0, 전월 53.8
- ▶ 유로존 6월 ZEW 서베이 예상 -12.6 (전월 2.4), 4월 섀닉스 투자자기대지수 9.27(전월 19.2)
유로존 5월 경기기대지수 112.3(전월 112.5)
- ▶ 독일 6월 IFO 기업환경지수 101.8(전월 102.3), 경기동행지수 105.1(전월 106.1)
향후 6개월 기업전망지수 98.6(전월 98.6), ZEW 경기기대지수 -16.1(전월 -8.2)
- ▶ 유로존 4월 산업생산 MoM -0.9%(전월 0.6%), 산업생산 YoY 1.7%(전월 3.2%)
- ▶ 유로존 6월 CPI MoM 0.1%(전월 0.5%), CPI YoY 2.0%(전월 1.9%), 근원CPI YoY 1.0%(전월 1.1%)
4월 PPI MoM 0.0%(전월 0.1%), PPI YoY 2.0%(전월 2.1%)
- ▶ 유로존 4월 소매판매 YoY 1.7%(전월 1.5%). 소매판매 MoM 0.1%(전월 0.4%)
- ▶ 유로존 5월 소비자기대지수 -0.5(전월 0.2)
- ▶ 유로존 5월 실업률 8.4%, 전월 8.4%
- ▶ 6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QE의 축소 및 종료를 선언(~9월 말 : 월 300억 유로 규모, ~12월 말 : 월 150억 유로 규모)
또한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2019년 여름 이후로 특정.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ECB회의 이후 5.6bp 하락
- ▶ 유럽연합은 28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소비재에 관세부과 시행(6.22)했고 EU정상회의에서 난민문제 협상안 타결

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